진리의 보배 중생 근기 맞춰 설하다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⑨ 네 가지 무거운 책임과 보배창고

"또 대지가 네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큰 바다와 산과 초목과 중생을 대지가 싣고 있는 것처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은 원력의 대지를 만들어 그 위에 네 가지 책임을 맡습니다. 그 네 가지 책임이란 선지식을 떠나 정법이 아닌 것을 들은 중생들을 인간과 천상의 선근으로써 키워주고 성문(聲聞)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문에 맞는 것으로써, 연각(緣覺)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각에 맞는 것으로써,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에 맞는 것으로써 각각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의 네 가지 무거운 책임이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원력의 땅을 만들고 네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는다면 널리 중생들의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 큰 자비로 중생들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 세상에서 진리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또 대지에는 네 개의 큰 보배창고가 있습니다. 첫째, 값이 없는 보배요, 둘째는 값비싼 보배며 셋째는 값이 적당한 보배, 넷째는 값싼 보배입니다. 이것을 대지의 네 가지 보배창고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은 서원의 대지를 만들어 중생의 네 가지 가장 크고 훌륭한 보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보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법을 들은 바 없는 중생에게는 인간과 천상의 공덕과 선근으로써, 성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문으로써, 연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연각으로써, 대승을 수하는 사람에게는 대승으로써 각각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보배를 얻은 중생들은 모두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에 의해서 기특하고 희유한 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큰 보배의 창고란 결국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대지가 일체 만물을 실어주는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바다, 산, 초목, 중생이라 말하고 그것에 비유하여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네 가지 책임을 맡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정법을 거두어들이려는 대승 보살의 책임이라 하여 보살의 책임을 밝힌다. 선지식을 만나지 못해 정법을 듣지 못한 불우한 중생들에게 선근을 심어 키우게 해 인간 세상과 천상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고 2승들에게는 그들의 근기에 맞는 방편을 쓰고,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법으로써 가르침을 주겠다는 것이다.

부처님 법에도 인연이 있어야 한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不能度無緣衆生)는 말이 있다. 〈증일하함경〉에는 부처님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땅에 서지 못한 중생들을 믿음의 땅 위에 서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큰 자비로 세상을 위해서 진리의 어머니(法母)가 되겠다는 말이 참으로 거룩하게 느껴진다. 거듭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보배의 창고가 된다고 설하며,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값비싼 보배, 값이 적당한 보배, 값싼 보배를 대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과 천상의 공덕과 성문의 법, 연각의 법, 보살의 법을 써 정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네 가지 보배가 된다는 말이다. 이는 모두 진리의 보배를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구분해 설해 놓은 말이다. 내가 가진 보배가 어떤 것인가? 마음이 보배이다. 이 마음을 무가지보(無價之寶)라 한다. 보배로써의 가치가 너무 높아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다.

寒山頂上月輪孤(한산정상월륜고) 한산의 산 위에 달이 홀로 떠 있어

照見靑空一物無(조견청공일물무) 아무것도 없는 푸른 하늘을 비추네.

可貴天然無價寶(가귀천연무가보) 귀하기만 하여라. 천연 그대로의 값없는 보배여.

埋在五陰溺臭軀(매재오음익취구) 오음에 파묻히고 냄새나는 몸속에 빠져 있구나.

한산시(寒山詩)에 나오는 마음을 무가지보로 표현한 시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이타 대비원력+수행=관음신앙 완성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㉜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견해

세 가지에 대한 믿음과 각오

불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행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음신앙은 신앙적 가피력을 구하는 타력적인 면과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되어 중생을 구하겠다는 이타구세(利他救世)의 자력적인 양면이 함께 공존하는 신행입니다. 따라서 관음신앙은 처음엔 타력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자력적인 수행의 단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은 완성된 구도자로서 중생구호의 대비심에 바탕을 둔 원력과 대자대비의 보리심을 승화시킨 분입니다. 그러므로 관음신앙은 신앙적인 가피력에 의존하는 타력적인 부분과 수행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어 스스로 중생을 구하겠다는 이타구세(利他救世)의 자비실천을 통해 보리도를 완성해 나가는 자력적인 수행의 양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신행입니다. 그러므로 관음 신행을 타력적 영역에서 자력적 수행의 단계로 반드시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행자는 관세음보살의 신앙적 가피력에 대한 확신과 관세음보살의 서원과 원생 그리고 정각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발보리심과 중생구제의 자비심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각오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첫째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구호하시는 신앙적 가피력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해 세우신 서원(誓願)과 원생(願生)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大悲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행자 자신 스스로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기 위해서 중생구제와 정각(正覺)을 스스로 이루고 말겠다는 대비심에 토대를 둔 보리심(菩提心)을 함께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세음보살의 가피력과 중생구제를 위한 서원과 원생 그리고 대비심과 발보리심 등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굳건하게 갖추어졌을 때 관음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서원(誓願)

불자 여러분! 〈60권 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구호하려는 다양한 모습의 서원들을 설하고 있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대비법문의 광명행을 행할 때에 큰 서원을 발하였으니, '일체 중생을 섭수하는 서원'이라 이름 하였다. 즉 모든 중생이 험난한 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번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미혹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속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살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또 생활하기 어려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악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대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나쁜 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암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또, 옮겨 다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원수를 만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몸을 핍박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핍박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걱정과 슬픔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이 일으키신 서원(誓願)은 대자대비심으로 일체 중생구제를 기필코 성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경에서의 가르침처럼, 모든 중생을 일체의 고통에서 구하겠다는 이타적인 대비원력의 의지가 깨달음의 수행과 결합되어졌을 때 비로소 관음신앙은 완성되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⑨ 괴로움의 성찰

'나'라는 생각이 만드는 '괴로움'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인다. 〈모든 번뇌의 경〉

태어남, 그곳에 '나'라는 생각이 붙어 가짜가 된다.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가짜다, 진짜다' 할 필요가 없다. '나'라는 생각 때문에 환(幻)이 되고 가짜가 된다. '나'라는 생각으로 환(幻)에 물들어 있는 것이지, 태어남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나의 견해로써 사실을 왜곡시켜 본래 그 자리를 어지럽게 하므로 괴로움이 생성된다.

지금 만들어진 조건을 살펴보면 어디에 옳음을 두고, 어디에 옳지 않음을 두겠는가? 옳고, 옳지 않음의 기준점을 '누구에게 둘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기준점을 둘 수 없다면 지금 일어나는 어떤 것도 '옳다, 옳지 않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견해 속에 진실은 없다. 진실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을 갖는다. 중심이라는 무엇이 나타나야 하고, 그 중심이 물질이 된다면 어떤 물질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중심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생성하는 일이다.

어떤 물질도 중심이 될 수 없을 때, 모든 물질이 중심이 되고 그곳에 나, 너라는 어떤 중심을 만들지 않으므로 괴로움의 소멸을 이룬다. 존재하는 물질 속에 멈추어진 상태의 침묵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정점을 찍을 '나' 라는 것이 사라졌을 때이다. 왜곡된 정보로 표적 없는 과녁에 화살을 쏘아 올리지만, 매번 빗나가는 것은 활을 잘못 쏜 것이 아니라 과녁이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괴로움이 일어난 줄 알아버리면 괴로움의 소멸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이 없게 되면, 괴로움의 생성이 없고, 괴로움의 생성이 없으면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는 명제는 처음부터 나타난 적이 없게 된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나라는 집착이 사라져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디에도 견해로 알아야 할 것이 없는 사실로 수용되어진다.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의 괴로움이 아닌 견해로서 왜곡을 일으킨 자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괴로움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지도 않은 허언(虛言)이다.

알아야 하는 마음은 알지 못함에서 나왔지만, 알지 못하는 마음이 알아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알아야 하는 마음과 알지 못하는 마음의 뿌리가 같은데 지금까지 이 둘을 오가며 분별하였음이 확연해지는 것이다. 두 마음 사라지니, 지금 있는 그대로 모두 나타나, 방해함 없이 그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나툼이 알려진다.

생사(生死) 병사(病死) 그저 부는 바람인데,
모든 것 내어주고 부들부들 떠는 허깨비
아무 뜻 없이 와서 뜻 없이 가는 그 바람.
무슨 의미가 그리 많은지 해도 해도 끝이 없네.
행주좌와(行住坐臥)어묵동정(語默動靜),
지난 번 불었던 그 바람과 다르지 않은데.
오늘도 그 바람과 다르게 해석하며 즐기는구나.
생각이라고 해도, 생각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지나온 그저 부는 바람.
누군가에게 스치기만 할 뿐, 그저 부는 바람
스치는 것 각자의 몫, 그러니 각양각색
아무리 메아리쳐도 돌아오는 것 없는 한때 부는 그 바람.
돌아보지 마라 돌아오려 하지 마라.
지금
그저 부는 바람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뇌출혈·골절상으로
혼수상태 빠진 가장의 사투

네팔 이주노동자 케빈씨…가족 위해 공장일에 배달까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사경 헤매…병원비 4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